

#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ment for Mission Purpose

이 란  
서울신학대학교

Ran Lee(iran370@st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세 권의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를 분석,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언어와 성경적 언어의 균형이 중요하다. 둘째, 선교 대상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교재가 출판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교재 개발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재 개발은 교사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 | 교재 개발의 방향성 | 탐색적 연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developing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the purpose of mission. For this, three kind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were analyz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howed to which directio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mission should be developed. They were as follows. First, the balance of everyday language and bible language is important. Second, the differentiated textbooks should be publish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patterns of learners. Third, professiona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 Christian education should cooperate in the textbook development. Fourth, the professionalism for textbook development should be enhanced. Fifth, textbook development sh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teacher education.

■ keyword : |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Mission Purpose | Direction of Textbook Development | Exploratory Study |

## 1. 서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역시 전세계적으로 높아졌다[1]. 현재 한국어는 세계의 언어 사용 순위에서

13위에 위치하고 있다[2].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다문화 사회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어 특

수 목적 및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 모두, 사회와 연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분류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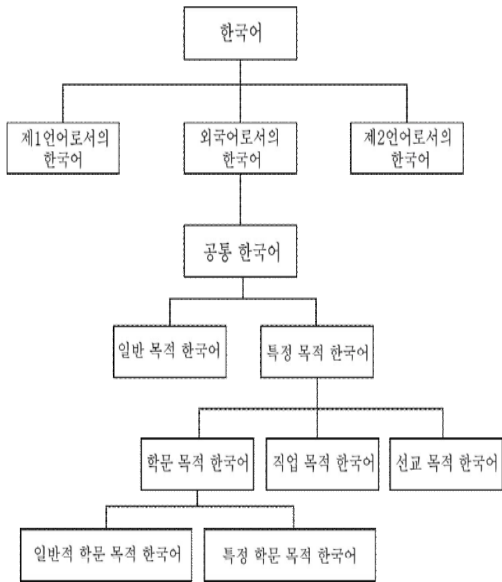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분류[3]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다. 국내 많은 교회들이 다각적인 다문화 전도전략을 가지고 외국인 예배와 한국어 교실을 교회 내에 신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은 해외 선교지의 생태도 바꾸어 놓았는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교기관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 선교의 접촉점으로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는 선교기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4]. 이처럼 국내외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필요는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방향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다수의 교단이 국내외 선교지에 응집력 없이 분산되어 있고 전체를 통합하여 보고해 줄 기구가 부재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해외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해외 한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국내 한국어 교육이 그것이다[5]. 이 세 형태의 한국어 교육의 공통된 특징은 기독교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 학습자 폭이 넓고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5].

이러한 형태의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교재가 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1][5].

해외 선교지 현황 분석의 연구는 현재 김동선, 김영주의 연구가 유일한데 선교기관 GMS와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현재 해외 각지로 파송된 100명의 선교사에게 얻은 설문 현황을 밝히고 있다[1].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2010년 당시 이미 62%였으며, 약 70%가 선교 활동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육의 동기는 선교 목적이 36%, 학습자 요구가 29%였다. 특히 교재와 교사훈련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36%). 성경적 내용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62%), 성경 내용의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57%), 이러한 교재가 거의 전무하여 한국의 대학교재(30%)나 일반회화 교재(25%), 성경(5%), 직접 만든 교재(2%)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1].

이처럼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 편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와 선교 어휘 목록을 추출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이제 겨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6]. 또한 한국에서 선교 목적 한국어 교사 소양 과정을 수강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매체 활용 교육론’ 등, 주로 교사 주도로 현지 상황에 맞도록 기존 교재를 개작하는 활동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첨가하여 선교 목적 한국어 교사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제안한 연구도 있다[4]. 그러나 이들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서 구체적 교재 개발을 위한 방향성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교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김인규, 신필여의 연구가 현재 유일하게 MK(선교사 자녀)들과 해외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 편찬 사례에 해당한다[7].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시중에 편찬 되어 있는 세 권의 교재를 분석하

여 이후 출판될 선교 목적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 II.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평가 기준

교재란 교육의 내용으로서 문서 등의 매체 형식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8]. 즉,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곧 교육과정을 문서 등의 매체로 작성하여 학습자의 교육에 맞게 전달하는 수업 진행용 교육적 도구이다[9].

김정숙 외[10]는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여건이 다양한 만큼 학습 목적을 비롯해 연령, 교육 조건, 모국어 등의 변인에 따라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수, 학습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나 교육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다. 넷째,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학습 주체인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방법, 절차를 설계하고 교재를 구성한다. 여섯째, 과정 중심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일곱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학습자 요구 조사의 선행, 기존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장단점 분석, 학생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한 내용, 자료의 실제성과 흥미성 등을 들 수 있다 [8].

무엇보다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재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 내용 [8]을 선교 목적 교재 분석이라는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 평가의 기준

기준	내용
교육과정	- 교재의 목표가 선교 목적 언어 교수 프로그램과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가. - 교재의 학습 상황에의 적합도, 이해가능성, 필요한 내용의 포함 정도
교재의 구성	- 학습자에게 적절한 등급별 구성과 진도를 제공하는가 - 문법 설명의 적정성과 구성 순서, 내용 조직 양상
언어 목록 (내용)	-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주요 문법 항목들을 다루는가 - 적당한 양과 선교 목적에 적합한 범주의 어휘 학습을 위한 것인가 - 발음교육의 포함성, 문장 차원을 넘어 담화, 사회적 상황의 적합성이 나타나는가
언어 기술	- 네 가지 언어 기능이 모두 다루어지는가 - 언어 기능의 통합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 듣기 녹음 상태, 실제 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잘 반영하는가 - 쓰기 활동은 조직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는가
주제	- 제시된 주제가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풍부한 주제를 포함하는가 - 학습자 수준 내에서 충분히 정교하며 사회 문화적, 기독교적 내용을 포함하는가 - 다양한 인종, 직업,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정의적 내용을 다루는가
방법론	- 새 언어 항목 제시와 연습의 방법이 적절한가 - 학습 전략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가
교사용 지도서	- 교사에게 교재와 수업 자료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시하는가 - 그 내용이 이해가능하며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가 - 교수 방법이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는가
실제적인 고려사항	- 교재 가격, 내구성, 깔끔한 외양, 구입 용이성, 관련 구성물 등

특히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는 특수 목적 교재이며 선교지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수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주제 관련 어휘와 핵심 용어, 담화 표지와 표현, 문법, 문제, 담화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성경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교재를 편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언어 학습에 용이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적 내용을 각 난이도에 맞게 포함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대상별, 연령별로 한국어 교육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할 때,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재 개발이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선교 목적 교재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교재 개발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일은 적합한 교재 부족이 보고되고 있는 현재 선교지 상황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III. 기존 교재의 검토와 평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는 크게 세 가지 시리즈이다. 먼저 <함께 배우는 한국어 첫걸음>과 1,2,3 시리즈이다. 한선협(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에서 출판한 것으로 서울대와 국립국어원에서 함께 집필에 관여했다. 두 번째로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는 도서출판 ‘우비’에서 펴냈는데 현재 청소년용과 아동용, 두 종류가 출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라는 교재는 도서출판 ‘박이정’에서 출판하였고 한국어 교육에 오랫동안 관여한 저자가 마태복음을 원문 그대로 한국어 교재화 하였다.

각각의 교재를 [표 1]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함께 배우는 한국어[11]

##### 1.1 교육과정과 교재의 구성

이 교재는 선교사 자녀 및 교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 목적은 먼저 한국인 선교사 자녀가 오지에서 모국어를 익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 한국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창의적 복음전파를 돕기 위한 것이며, 셋째, 날로 증가하는 재외국민 2세들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어를 독학하거나 가정 학습이 대부분인 이들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학습에 적합하도록 꾸며진 장점이 있다. ‘첫걸음’은 자모음의 한국어 기초, ‘1권’은 초등 저학년 수준, ‘2권’은 고학년 수준, ‘3권’은 중학교 수준에 맞도록 편찬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4 단계로 나뉘어 있어 적절한 등급별 구성과 진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권의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함께 배우는 한국어 3>의 교재 구성

과	주제
1과 우리들의 캠프 이야기	캠프/수련회, 일정 안내문, 외국생활에 대해 말하기, 소감문 쓰기 등
2과 세계의 풍습	세계의 다양한 문화, 여러 나라의 몸짓 언어 소개, 자기 문화 소개하기, 쓰기 등
3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성경적 가치관, 올바른 성경적 자아 형성, 성경적 물질에 대해 말하기, 이성 교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 쓰기 등.
4과 한국 여행을 해볼까요?	한국의 여행지 소개, 수학여행 기행문, 여행지 소개하기, 기행문 쓰기 등.
5과 한국의 대중문화, 세계인의 품으로	대중문화, 영화 및 공연 관객 평, 한류에 대한 뉴스 보도문, 한류에 대한 인터뷰하기, 영화 추천글 쓰기 등.
6과 한국 문학의 이해	문학, 김소월, 윤동주 시 읽기, <소나기> 감상문, 감상 말하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
7과 과학 기술의 두 얼굴	과학 기술의 양면성, 인터넷의 장단점, 인터넷 사용 습관 말하기, 핸드폰 장단점 쓰기.
8과 한국의 청소년	한국 청소년 생활, 고민 상담하기, 자신의 하루 쓰기 등.
9과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과 음식, 간단한 생활 체조, 청소년 위한 건강식품, 건강식품에 대해 쓰기.
10과 하나님과과의 대화, 기도	기도, 설교문, 기도의 위인 소개,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말하기, 기도문 쓰기 등.
11과 내 꿈을 찾아서	성격 유형, 진로 탐색, 자신의 성격과 희망 진로 말하기,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쓰기.
12과 키워드로 보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근현대사, 한국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신문 기사 쓰기.

이 교재는 학습 대상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국제인, 한국인, 천국 시민 청소년이라는 삼중 정체성을 고양하고자 국제 문화, 한국 문화 및 역사, 신앙적 내용, 일반 청소년 시기의 관심사 등을 골고루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교재의 목표와 학습자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문법과 어휘 설명이 나와 있어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쉬어가기” 코너를 여러 차례 삽입해 윤동주 같은 한국의 위인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김구 등의 위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어휘에 대한 한자 학습까지 수록되어 교재의 내용 조직이 국제인으로서 자칫 잊기 쉬운 한국 청소년들과의 공통 분모를 고려하고 해외에 거주하기에 결핍되기 쉬운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 조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문법적인 위계와 제시 순서가 여타 일반 한국어 교재처럼 계열성 있게 구성되지 못한 약점이 있다.

## 1.2 언어목록, 기술, 주제

먼저, 언어 목록 면에서 주요 문법 항목들이 설명되고 있지만 계열적 원리, 즉,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와 빈도에 따른 체계적 배열이 타 교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 이는 한국어 구어에는 비교적 능통한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 면에서도 대체로 다양한 일반 어휘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인 만큼 성경적 어휘가 보다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난이도가 있는 일반 어휘들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성경이나 기독교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연습 문제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 점은 이 교재를 선교지에서 일반 현지인 선교를 위해 채택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기술을 살펴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이 대체로 골고루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재는 최근에 말하기 듣기 훈련을 강조한 CD 교재로 재출판되었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나 동포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며 생활하기에 구어에는 강하나 읽기, 쓰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이기 쉽다는 이해를 반영하여 읽기와 쓰기 부분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쓰기 전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점은 타교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점은 비교적 구어에는 강한 MK라는 특정 대상을 고려하여 편찬된 본 교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선교사가 한국어에 전혀 무지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접착점으로 사용하기에는 구어 회화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주제면을 살펴볼 때, 성경적 세계관이 모든 과에 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개의 장은 명시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제목에서부터 드러내어 충분히 다루고 있고, 일반 주제를 다루는 장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가치를 투영하고 있다.

## 1.3 방법론, 지도서, 기타

언어 항목의 연습에 있어서 구어보다는 읽기, 쓰기

에 훈련이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한국어를 배울 때 접근하는 회화 위주의 교육 방법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학습 전략 면도 다소 문어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교사용 지도서도 아직 편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에 필요가 있으면 지도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율학습을 위한 교재라는 특성상 이 기한은 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지 현지인 교육 목적의 교재를 활용의 목표로 상정한다면 지침서 편찬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교재가격, 구입 용이성 등도 좋은 편이다. 관련 구성물은 현재 CD가 있으며 관련성 있고 적절하게 녹음되었다. 양질의 종이를 사용하여 내구성 및 외양도 훌륭하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재의 주요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함께 배우는 한국어〉 교재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 자녀에게 특화된.</li> <li>• 읽기 쓰기 문어에 집중</li> <li>• 자율학습에 용이</li> <li>•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 우선</li> <li>• 일반 어휘의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현지인 선교에는 부족함</li> <li>• 듣기 말하기 구어에 부족함</li> <li>• 교사용 지침서의 부재</li> <li>• 문법의 위계적 체계성 부족</li> <li>• 성경적 어휘의 포괄성 미비</li> </ul>

## 2.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12]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는 아동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별 시리즈물은 아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 에피소드를 추출하여 구성했으며 '개역개정'이 아닌 '현대인의 성경'을 사용하였다. 또 어려운 표현들은 쉽게 개작하였다. 스토리텔링 수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듣기, 말하기 위주의 구어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총 12과로 구성되어 12개의 스토리 에피소드와 거기서 추려진 문법, 어휘 설명과 연습, 간단한 말하기와 쓰기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1 교육과정과 교재의 구성

이 교재는 현지인 선교를 위한 교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지인에게 필요한 일반 회화와 문법, 그리고 성경의 용어, 기독교적 내용 등이 배합을 잘 이

루고 있다. 이 특징은 중요한데, 선교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라도 현지인에게 성경 용어만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용어나 표현을 가르치면서도 대상자가 일상적인 한국어 회화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교재 구성을 잘 하여야 하는데 본 교재는 그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읽기 본문으로 주어진 텍스트는 성경의 스토리지만 문법과 연습 부분은 성경적 내용과 일반 회화의 문장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교재의 목적이 선교 목적 언어 교수와 학습자 요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학습보다는 교사 중심 집단교육 형태에 적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현지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교재의 구성 면에서 보면 총 12과 내에서는 문법의 계열성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이 한 권만으로는 초급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법과 어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 한다. 만약 이 교재를 활용하려면 일반 회화 교재와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초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급, 고급 수준의 대상자를 위한 교재 시리즈가 추가 편찬되어야 한다.

내용 조직은 스토리텔링 위주로 구성되었고 성경 스토리를 읽고 말하는 활동에 그 초점이 놓여져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내용이나 주제를 전달할 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13] 사건의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이다[14]. 스토리텔링 수업이 듣기 말하기 수업에 적당한 이유는 현재성에 의한 상황의 공유, 그로부터 유발되는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15]. 스토리텔링은 교훈과 흥미, 감동, 공감, 소통의 터전으로[16] 특히 외국어와 언어학습에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 청취력과 집중력을 개발하며, 새 단어를 문맥 속에서 추측하게 하면서 다양한 문장에 노출시켜 외국어 언어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17]. 구술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18] 읽고 쓰는 능력과의 연결이고 언어 학습의 효과성을 보장한다[19]. 실제 이를 선교 목적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한 결과, 학습자들의 읽기 쓰기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교재는 선교 목적 한국어 수업 교재로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어 수

업만으로도 듣기, 말하기, 읽고 쓰기 등의 4가지 기술 모두에 있어 일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전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구성되었다.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청소년용> 교재 구성

과	주제
1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2과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3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요.
4과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어요.
5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6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7과	바디매오가 볼 수 있어요.
8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조용하게 하셨어요.
9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10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11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12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각 과는 본문, 새 어휘, 어휘활동, 내용 이해활동(스토리 구성), 이야기 만들기, 문법 설명과 연습, 수업 후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 수준이므로 문법 설명은 많지 않으나 활동 문제는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다. 예문들은 성경적 내용과 일반 회화 내용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어 선교 목적의 포괄적 교재로서 적합하다.

## 2.2 언어목록, 기술, 주제

먼저 언어 목록을 살펴보면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주요 문법 항목을 계열성에 따라 순서 있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에 있어서도 일반 어휘와 성경 어휘를 섞어 제시하나 본문이 아닌 문제 문장들은 대체로 일반 어휘 쪽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발음교육 내용이 부재하다. 이는 이 교재가 스토리텔링 중심의 교재이기 때문인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스토리텔링 수업이 가진 강점인 담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이 특징적이다.

언어 기술 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골고루 배열되어 있으나 특히 읽기, 말하기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듣기 녹음 파일은 없어 교사에 의존해야 하며 성경이야기 텍스트만 있어 그 외에 실제 상황들에 대한

어휘와 회화가 추가적 읽기 자료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주제는 성경 이야기들을 다루지만 스토리텔링이 가진 장점인 흥미가 유발된다. 성경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는 텍스트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텍스트 삽입이 필요하다.

### 2.3 방법론, 지도서, 기타

방법론에 있어 새 어휘 제시와 발음 연습 부분이 지나치게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 교사의 창의적 재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교사용 지침서가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우 실제적인 활동과 도움말이 제공되어 있으며 교수방법과 문화 등에 대한 읽을거리가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재 가격, 내구성, 외양, 구입 용이성 등도 매우 실용적이며 양질의 것이다.

이상 본 교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5.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교재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교 목적 한국어 수업에 적당함.</li> <li>•읽기, 말하기 활동에 집중</li> <li>•교사 지침서가 자세하고 풍성한 내용을 제공함.</li> <li>•스토리텔링 수업의 장점을 활용함 - 흥미성, 말하기 능력.</li> <li>•성경 어휘 중심과 일반 어휘의 배합</li> <li>•내구성, 외양이 양질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텍스트가 다소 성경이야기에만 치우쳐 있음.</li> <li>•선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li> <li>•듣기, 쓰기 활동이 부족함</li> <li>•발음 및 어휘 자료 부분이 약함.</li> <li>•듣기 녹음 파일의 부재.</li> <li>•교사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함</li> </ul>

### 3.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20]

이 교재는 세 권의 분석 교재 중 유일하게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를 본문 텍스트로 활용한 교재이다.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의 교사로 활동했던 저자 박미경이 직접 교재를 편찬했다. 국내 신학교나 교회 등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으로 배우는 교재 필요성을 느껴 집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장을 순서대로 배열한 교재이다.

### 3.1 교육과정과 교재의 구성

이 교재는 집필자가 밝히듯 국내외 선교지나 국내 신학교, 교회 등의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개역 개정 성경이 국내인들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외 신학생, 신학 유학생, 교인들에게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신학교나 교회 일원에게 성경공부를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라면 학습자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교수자가 성경과 한국어 모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다만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등급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지 않은 교재이다. 난이도 설정이 없지만 성경의 텍스트는 고어체로 어려운 반면 문법이나 어휘는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텍스트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학습자 수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단어는 주로 성경의 용어 중 주요 단어이며 한자, 영어, 예문,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휘 중심의 교육에 치우치기 쉽게 구성되었다. 어휘 설명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면서 문법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 부록으로 구성된 문법 활동지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교재를 사용한다면 고급 수준의 숙달도를 갖춘 학습자에게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3.2 언어목록, 기술, 주제

문법의 난이도 조정이 아쉽다. 또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문법이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성경 학습용 교재처럼 보인다. 제시 어휘는 성경에 등장하는 난해 용어 위주로 소개하고 있어 일상적 어휘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다. 그러나 추가 활동로 제시되는 문법 활동지에 등장하는 어휘는 성경과 일반 어휘들이 혼재되어 있다.

발음교육과 담화, 사회적 상황의 적합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주로 읽기 자료와 간단한 말하기를 위한 질문, 단어 중심으로 교재가 짜여져 있다. 그러므로 읽기 중심 교재라고 명명할 수 있다. 다른 언어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아쉽다. 듣기 녹음 파일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부차적 자료이다. 읽기와 어휘 중심의 학습에 비하여 큰 비중은 없다. 따라서 실제 생활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쓰기 활동은 부재하다.

주제면에서도 학습자의 요구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신학적 목적, 성경공부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이 교재를 일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타교재와 연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부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 3.3 방법론, 지도서, 기타

새 어휘 항목 제시는 풍부한 예문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나 쓰기 등의 다른 영역의 설명이나 질문지가 없어 부족한 면을 드러낸다. 교사용 지도서는 없으며 교재 가격은 비싼 편이다. 외양이나 내구성 면에서도 다른 교재보다는 아쉽다.

그 장단점을 표로 제시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교재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학생 교육이나 성경공부용 한국어 교재로 적당함.</li> <li>•읽기, 어휘 활동에 집중.</li> <li>•교사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음.</li> <li>•교사의 풍부하고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유용함.</li> <li>•성경 어휘 중심이나 예문은 일상 어휘를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텍스트가 개역개정 원문으로 고급 대상자가 아니면 어려움.</li> <li>•초신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li> <li>•듣기, 쓰기 활동 등이 부족함</li> <li>•교사용 지도서가 없음.</li> <li>•교재가격이 비싸고 외양이나 내구성이 떨어짐.</li> <li>•교사의 한국어, 신학적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함.</li> </ul>

## IV.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성

한국어 교재는 학습 목적에 따라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나뉘는데[21] 선교 목적 교재는 특수 목적 교재에 해당된다. 특수 목적 교재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숙달과 함께 특정 목적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취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란 국내외 선교지에서 대상자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주면서 동시에 복음(예수 그리스도)과 성경을 소개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목적으로 씌어진 한국어 교재이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위에서 기존 교재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일반 목적 언어와 성경적 언어의 균형

일반적으로 특수 목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학문 목적,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도 일반 목적의 교재를 병행하여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 역시 일반 목적의 교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교지는 학문 목적이거나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 같이 전문적으로 두 개의 교재를 병행해 가르칠 수 있는 상황과 여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로 무료 수업이고 수업 구속력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교재를 단순히 병행하기보다는 통합의 방식으로 엮어 사용함이 적절하다. 다행히도 <함께 배우는 한국어> 시리즈가 그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목적의 어휘나 문법, 내용을 다루면서도 성경적 내용이나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는 본문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해 놓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재 제작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언어 교육 방향이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2]. 선교지에서 학습자는 일반 목적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들이 처음 한국어 교실을 찾는 까닭은 선교적 이유라기보다는 한국어 자체를 배우고 한류를 경험해 보고 싶은 이유가 크므로 일반 목적의 일상 한국어를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성경 속 창조 사역, 인물별 에피소드, 예수님의 구속 사역 등의 주요 내용들을 본문 중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적 용어들도 교재의 어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함으로써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는 일반 목적 한국어와 성경적 내용의 한국어의 통합적 교재가 바람직하다. 각 내용의 비율은 선교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신자라면 일반 목적 한국어 분량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것이고, 성경적 어휘나 내용도 초급 수



준에 국한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학습자를 위한 교재 시리즈라면 성경적 내용의 분량을 점차로 늘려가는 방법이 적당할 것이다.

표 7. 성경적 언어의 교육과정 예시(중급)

성경적 내용	성경적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의 창조 사역</li> <li>•하나님의 문화 명령</li> <li>•이스라엘 역사 속 주권 사역</li> <li>•성경의 주요 인물 에피소드</li> <li>•예수님의 공생애 사역</li> <li>•예수님의 죽음과 부활</li> <li>•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소망</li> <li>•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기독교 세계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지창조, 에덴동산, 선악과</li> <li>•죄, 사탄, 유희 등</li> <li>•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li> <li>•기도, 율법, 계명 등</li> <li>•구약, 신약 성경과 각 권의 이름들</li> <li>•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부활</li> <li>•재림, 하나님 나라 등</li> <li>•종인, 선교, 전도 등</li> </ul>

4.2 선교 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재

위에서 살펴본 3권의 교재 중 <함께 배우는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교재 사용 대상자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교 대상자는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교포, 선교사 자녀, 국내 이주민, 유학생, 국외 선교지 대상자 등 각각 학습자들의 필요는 저마다 독특하고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이주민 대상의 교재라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일상생활, 교회 생활 등을 필수로 다루어야 하며, 선교사 자녀가 대상인 교재라면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주면서 특히 한국 청소년들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편찬하는 것이 좋다[1]. 그 세부 내용의 예시를 대상자별로 나타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대상자에 따른 교재 구성의 예시

대상자	교재 구성의 핵심 내용 (예시)
교포 2, 3세	한국어 일상 회화, 한국의 문화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관련 내용, 문화 간 비교,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 성경적 내용 등.
선교사 자녀	한국어 일상 회화, 한국인, 국제인,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관련 내용, 청소년 시기의 고민과 문제 해결, 한류와 문화 읽기, 성경적 물질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등.
국내 이주민	일상 회화, 일상생활, 예절, 경어법, 자녀 양육, 경제생활, 취업, 한국 사회, 신앙생활 등.
유학생	일상 회화, 일상생활, 한류, 드라마 읽기, 진학과 취업, 대학생활, 성경적 세계관, 복음 제시, 선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비전 다루기 등.
국외 선교지 외국인	일상 회화, 한류, 드라마 읽기, 한국 문화와 사회, 문화 간 비교, 한국 여행지 소개, 복음 제시, 선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재들은 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안되고 출판되어 그 사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교재들은 대상자에 따라 어휘, 난이도, 문법, 본문 텍스트, 삽화 등의 설계가 서로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편찬될 교재들은 선교 대상자 중에서도 어떤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할지를 미리 설정하고 구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를 미리 조사하고 이를 철저히 반영해 교육과정, 방법, 절차를 미리 설계하고 교재를 구성해야 그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상자를 목표로 해 구성된 교재인지가 교재에 명시되어야만 한다.

4.3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신학(기독교) 전문가의 협력적 개발

위에서 살펴본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본문이 설계되어 외국인 신학 유학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인 성경공부용으로만 적합하였다. 그러나 선교 목적이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초이므로 이 교재를 실용성 있게 선교지에서 사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난해한 성경 어휘가 텍스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도 교재가 아니라 교사 몫이었다.

앞서 살펴본 다른 두 교재는 성경 텍스트를 실어놓거나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본문에서 제시해 놓기는 했어도 일반 목적 교재와 교육내용은 대동소이하었다.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이 복음을 소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목적이라면 현재처럼 기독교적 내용의 텍스트를 실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한국어 능력 향상만이 목적이 아니므로 텍스트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설명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 목적 교재를 편찬할 때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아울러 신학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떤 텍스트를 활용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단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협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4 교재 개발의 전문성 제고

위에서 살펴본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 배열이 한국어 교육의 계열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재 편찬에 철저히 훈련된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은 결과이다. 무리하게 성경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어휘 및 문법 난이도 배열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어 교육의 구성요소에 있어 난이도 배열의 체계성에만 집중하면 기독교적 내용을 구성하는데 난점이 생긴다.

이 말은 교재 개발에 많은 전문적 인력과 시간,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자 요구 분석이나 교재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통시적이고 공시적 연구도 포함된다[23].

또 어떤 교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훈련’과 같은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4가지 언어 기술 중 한 두 가지만 활용한 교재도 있다. 이 역시 교재 개발의 전문성에 소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선교사들이 이중직으로 감당한다는 현 실태를 고려할 때, 교육 활동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기술된 양질의 교사용 지침서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아울러 한국어 교육의 연구 전문가들이 협력적으로 오랜 노력과 시간을 통해 교재를 개발할 때 가능하다.

4.5 교사 교육과의 연계

교재 개발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신학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야 하듯이, 선교지 한국어 교사 역시 두 분야 모두에 있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선교 목적 교재는 그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재는 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난이도에 따라 교재가 시리즈로 편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수준별 교재는 동시에 신학적 수준의 계열성과도 일치시켜 편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재를 아무리 수준별로 난이도의 계열에 따라 잘 편찬해 놓아도 교사가 한국어, 성경 한 분야에 있어 무지하면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 선교사는 한국어 교육 역량이 약하고 일반 한국어 교사는 신학적

지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 두 역량 모두를 전문적으로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교재 편찬은 교사 교육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기존 연구나 관련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사들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적으로 사역해, 사전 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각 선교지별 교재를 제작하고, 각 교재에 적합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침서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선교지에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도 현장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피드백을 받아 수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단계 및 교육 활동 예시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재 개발과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단계	교재와 교사 교육의 연계
예비 조사	기존 교재와 관련 연구물의 전문적 검토, 현장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현장 조사	다양한 선교지의 필요와 교재 사용의 현장 조사, 각 선교지 유형별, 국가별 필요를 체계적으로 정리, 예비 조사 결과와의 통합과 재검토.
교재 편찬	한국어 교육 전문가, 신학 전문가, 교재 출판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재 편찬 위원회 구성, 기존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각 선교지별 적합한 교재를 편찬.
교사용 지침서와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성격에 맞는 교사용 지침서 개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할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	교재를 홍보하고 교재 사용 예비 교사나 현지 교사들을 모집하여 교사 교육을 실시.
교재 사용 및 피드백	각 선교지에서 교재를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안내하고 현지에 전문가를 파송하거나 설문 등의 방식으로 피드백 수집.
수정 및 교사 재교육, 수시교육	교재의 수정, 교재의 수정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교사 재교육 실시, 이후 교사들 대상 수시교육 실시.

V. 결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한국어 교육은 현재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선교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이 많아져서 이를 선교의 접촉점으로 활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현재 불모지와 같은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역에 집중하는 일은 실로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세 종류의 교재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일상 언어와 성경적 언어의 균형, 선교 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재,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신학 전문가의 협력적 개발, 교재 개발의 전문성 제고, 교사 교육과의 연계 등이다.

교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교사 변인만큼이나 중요한 변인이다. 선교사들의 실태 조사에서도 선교지 상황에 맞는 교재 편찬을 첫째 필요로 내세웠던 만큼, 현대 선교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원한다면 당연한 선교 목적에 타당한 교재 편찬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는 해당 교재 개발의 과정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동선, 김영주, “선교지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 Vol.21, No.1, pp.29-60, 2010.
- [2] 박성대, *한국어 교육을 통한 타문화권 선교전략-중국 복가교회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 박경현,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4] 이승연, 김유진, 김부옥, “한국어 교사 교육의 다양화 방안 연구- 선교 목적 한국어 교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24, pp.189-216, 2013.
- [5] 안병근, “교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6] 박경현,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7] 김인규, 신필여, “특수 목적 한국어교재 개발 사례-해의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국제한국어어문학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추계 학술대회, 2011(9).
- [8]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2 (3판)*, 서울: 아카넷, 2018.
- [9] 서종학, 이미향, *한국어 교재론*, 서울: 태학사, 2007.
- [10] 김정숙 외, *한국어 교육 총서5*,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 재단, 2006.
- [11] 민현식 외, *함께 배우는 한국어3*, 한선협, 2011.
- [12] 김영주, *최승희, 성경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청소년용)*, 우비, 2013.
- [13] 김효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청소년대상 자전적 글쓰기 지도 사례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4] 이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 [15] 육상호, 박성수,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베트남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42, 2010.
- [16] 조정래, *스토리텔링 멘토링*, 행복한 미래, 2013.
- [17] G. Ellis and J. Brewster,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 1-2*, New York: Penguin Publishing Company.
- [18] M. A. Stadler and G. C. Ward, “Supporting the narrativ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Vol.33, 2005.
- [19] 최승희,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성경 스토리텔링의 효과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0.
- [20] 박미경,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박이정, 2012.
- [21] 박지영 등,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 [22] 안경화, *한국어 교육론1*, 한국문화사, 2005.
- [23] 조항록,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3.

저 자 소 개

이 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Faculty of Education. (Msc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2017년 :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전공(문학석사)
  - 2017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문학교육전공(철학박사)
  - 2018년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CTL 글쓰기 지도 교수
- <관심분야> : 한국어 교육, 독서와 글쓰기, 매체 언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